

찰나의 봄 살다가 '하얀 나비' 부활의 날갯짓



〈박성서 제공〉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19〉 가수 김정호와 광주·담양

11월, 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초입이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바람에는 찬 기운이 스며있다. 한 계절을 넘어 가는 아슬아슬한 경계의 시간이다. 그러나 인디언 아라파호족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부른다. 11월의 텅 빈 들녘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여백'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11월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다. 그 애처로움을 잘 드러낸 노랫말이 있다. "내 기억속에 11월은 영원히 남으리." 이 구절은 그리스의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 일부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내 기억속에 11월은 영원히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나찌에 저항한 한 레지스탕스를 위한 노래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다. 11월에 연인과 함께 카테리니로 떠나기로 했던 한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 노랫말대로 남자는 나타나지 않고 기차는 8시에 떠나고 만다.

아마도 다른 계절이었으면 안타까움이 덜했을 것이다. 11월은 그런 시간이다.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보다 더한 절박감을 준다. 불꽃이 절정에 다다르기 이전 가장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11월은 12월보다 더한 쓸쓸함과 무상함을 준다.

11월 이미지를 지닌 가수가 있다. 노래도 그렇고 삶도 그렇다. 그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련한 슬픔을 남겼다. 광주 출신 가수 김정호(1952~1985). 흰 눈이 흩날리던 85년 11월 그는 33세의 나이로 세상과의 이별을 고했다.

올해는 김정호가 폐결핵으로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또 한 세대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처럼 '하얀나비'가 되어 떠났다고 말한다. "꽃들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음~." 김정호는 팬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활활 날아다니는 한 마리 하얀나비다.

그는 생전에 '고독한 여자의 미소는 슬퍼', '빛속을 돌이서' 등 많은 히트곡을 직접 만들고 불렀다. 어니언스의 대표곡 '저별과 달을',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등도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광주는 김정호가 태어난 고향이다. 정확히 말하면 북동천주교회 옆이 텃자리다. 어린 시절을 외가인 담양에서 보내다, 광주 대인동에서 살며 수창초등학교를 다녔다. 2학년 무렵 서울로 전학을 갔지만, 김정호 음악의 본향은 명백히 이곳 남도다.

그의 노래는 지리적인 인연뿐 아니라 혈연으로도 남도와 연계돼 있다. 그의 외조부는 담양출신 창작 판소리의

대가 박동실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담양소리를 전수받아 대중화에 기여한 어머니 박숙자 명창이며 외삼촌은 '아쟁 명인' 박중선이다.

김정호의 음악 기저에 남도의 정한이 반영되어 있는 이유다.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라는 일련의 평가 또한 외가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 김정호가 작곡한 50여 편의 곡에는 그리움, 고독, 슬픔이라는 국악의 공통 정서가 자리한다. 가요에 국악적 요소를 접목시킨 그의 노래는 한 서린 음색과 어우러져 특유의 빛을 발한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대중가요'(신성원 지음)에는 김정호의 무명 시절에 얽힌 에피소드가 소개돼 있다. 1970년대 그는 명동 음악감상실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출연료를 주지 않는데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최근 들어 김정호를 기리는 움직임이 조금씩 사회화되고 있다. 담양 가로수사랑 군민연대는 지난달 10월 8일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노래비 제막식을 열었다. 김원중, 하남석, 이필원, 백순진, 임창제, 홍민, 채은옥, 소리새 등 추억의 가수들과 유가족, 팬클럽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래비는 가로 7m, 세로 7m로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이 재현돼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주에서 추모음악회 '2015하얀나비 김정호'가 열렸다. 수창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가수협회 광주지회 가수들의 공연 '부르는 노래 그리운 사람'이 펼쳐졌다. 그의 삶과 음악세계를 담은 추모영상 시청과 하남석, 어니언스, 신계행, 유심초, 소리새, 하성관 등이 출연해 고인의 음악적 혼을 기렸다. 공연 전 2일에는 광주시의회에서 '도시 재생 차원의 하얀나비 김정호거리 추모 음악회를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지역 의 뜻있는 인사들은 올 초부터 한국가수협회 광주지회와 함께 '김정호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가 태어난 북동 성당 일대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오래 전 고인이 된 대중가수를 '현재의 무대'로 불러오는 것은 간단치 않다. 대중가수의 죽음은, 달리 말하면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짐을 뜻한다. 유행을 먹고 사는 대중문화는 결코 '과거의 시간'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대중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 그들이 똑똑하다는 것은 '흘러간 가수'일지라도 그가 지닌 브랜드, 가치를 보는 눈만큼은 예리하다는 점이다. 김현식, 김광석의 추모공연이 열렸고 지금도 후배가수들이 그들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문화 자산의 가치는 대규모 건물을 짓고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잊혀진 예술가를 불러내, 오늘의 시대에 맞게 스토리를 엮고 새로운 양식의 문화를 입힌다면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는 허름한 방천시장 골목을 전국에 내놔도 손색 없는 활기찬 거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김정호는 남도의 정서와 소리, 혼을 지닌 가수다. 남도는 너무도 오랫동안 보석 같은 가수를 잃고 있었다. 마치 김정호가 불렀던 '이름 모를 소녀'처럼 그렇게 말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 메타세쿼이아 거리에 있는 김정호 노래비(왼쪽)과 동상.



지난달 광주 수창초에서 열린 김정호 추모음악회. (가수협 광주지부 제공)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